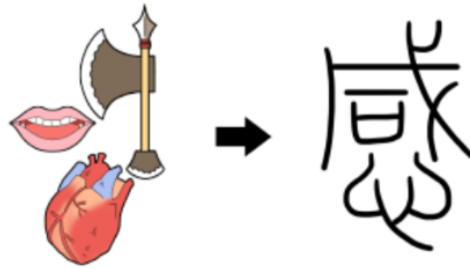


6  
-  
1

회의문자 ①



感

느낄 감

感자는 '느끼다'나 '감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感자는 咸(다 함)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咸자는 '모두'나 '남김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남김없이'라는 뜻을 가진 咸자에 心자를 결합한 感자는 '모조리 느끼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모조리 느끼다'라는 것은 오감(五感)을 통해 느낀다는 뜻이다.

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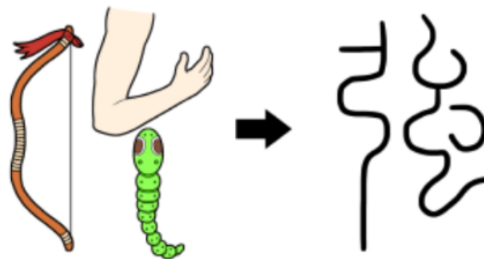
소전

感

해서

6  
-  
2

회의문자 ①



强

강할/  
굳셀  
강

强자는 '굳세다'나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强자는 弓(활 궁)자와 口(입 구)자, 虫(벌레 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强자는 強(강할 강)자의 또 다른 글자로 이전에는 强자가 '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强자는 弘(넓을 홍)자와 虫(벌레 충)자가 결합한 것이다. 强자는 이렇게 '크다'나 '넓다'라는 뜻을 가진 弘자에 虫자가 결합한 것으로 강한 생명력을 가졌던 쌀벌레를 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강하다는 뜻만이 남아 '강하다'나 '굳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强자는 强자의 속자(俗字)였으나 지금은 强자가 '강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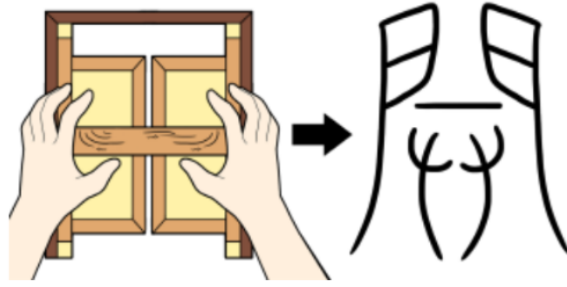
소전

强

해서

6  
-  
3

회의문자 ①



開

열 개

開자는 '열다'나 '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開자는 門(문 문)자와 开(평평할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开자는 나뭇가지가 일렬로 늘어선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開자의 갑골문과 금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고문(古文)에 나온

開자를 보면 門자에 一(한 일)자와 卩(받들 공)자가 결합한 開 형태였다. 여기서 卩자는 양손을 그린 것이니 開자는 양손으로 빗장을 푸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開자는 이렇게 문을 여는 모습에서 '열다'나 '열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이외에도 '깨우치다'나 '시작하다'와 같은 의미가 파생되어 있다.

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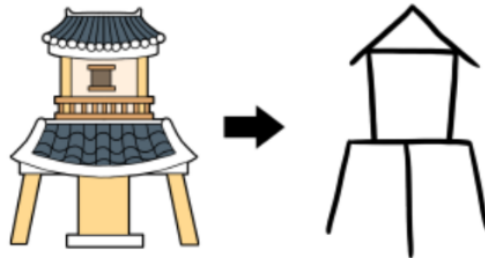
소전

開

해서

6  
-  
4

상형문자 ①



京

서울 경

京자는 '서울'이나 '도읍', '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京자는 亠(돼지해머리 두)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돼지머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京자의 갑골문을 보면 기둥 위에 큰 건축물이 세워져 있었다. 이것은 큰 건물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京자의 본래 의미는 '높다'나 '크다'였다. 높고 큰 건물을 그려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읍에는 큰 건물들은 많았다. 그래서 京자는 후에 '도읍'이나 '수도', '서울'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京

갑골문

京

금문

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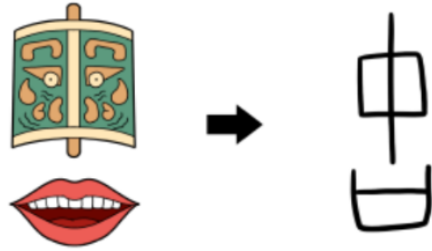
소전

京

해서

회의문자 ①

6  
-  
5



古

예(옛)  
고

古자는 '옛날'이나 '예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古자는 口(입 구)자와 十(열 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古자의 갑골문을 보면 口자 위로 中(가운데 중)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입'과 '방패'를 표현한 것이다. 방패는 전쟁에 쓰이는 무기로 古자는 오래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말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후세에게 들려준다는 의미인 것이다. 古자에 攴(칠 복)자를 더한 故(옛 고)자가 '옛날'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로 口자를 '세대'로 해석하여 古자는 10세대를 거친 것이니 '옛날'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풀이도 있다. 하지만 갑골문에서의 十자는 |자 형태로 그려졌었기 때문에 같은 시기 古자에 그려졌던 中자와는 모양이 다르다.

古

갑골문

古

금문

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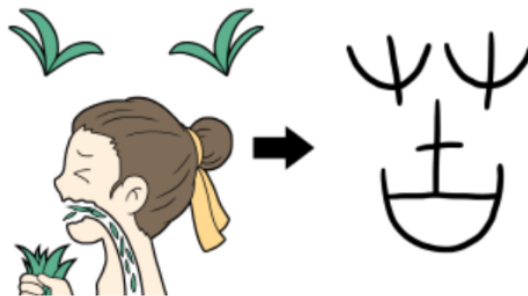
소전

古

해서

형성문자 ①

6  
-  
6



苦

쓸(괴로  
울)  
고

苦자는 '쓰다'나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苦자는 艸(풀 초)자와 古(옛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古자는 '옛날'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苦자는 풀이 매우 쓰다는 뜻으로 艸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괴롭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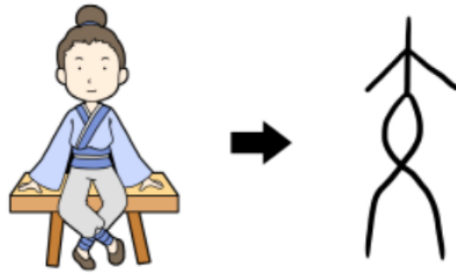
소전

苦

해서

6  
-  
7

상형문자 ①



交

사귄 교

交자는 '사귀다'나 '교제하다', '엇갈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交자는 丩(돼지해머리 두)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돼지머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交자는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交자의 갑골문을 보면 양다리를 꼬고 앉은 사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交자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사람을 그려 '엇갈리다'나 '교차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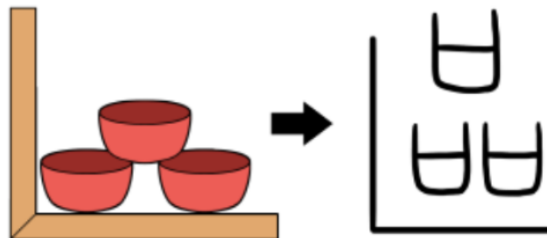
소전



해서

6  
-  
8

회의문자 ①



區

구분할/  
지경/  
구역  
구

區자는 '구분하다'나 '나누다', '구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區자는 匚(감출 헤)자와 品(물건 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區자를 보면 선반 위에 그릇이 놓여있었다. 이것은 '그릇'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區자는 '작은 사발'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그릇이 가지런히 나누어져 있는 모습에서 '구분하다'나 '나누다', '구역'이라는 뜻이 확대되어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작은 사발'이라는 뜻은 瓦(기와 와)자를 더한 甌(사발 구)자가 따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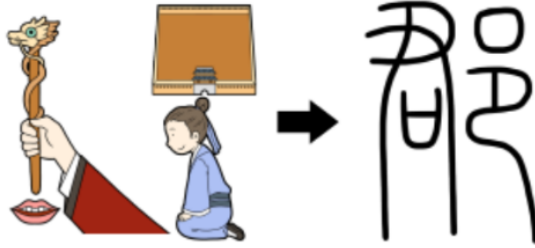
소전



해서

6  
-  
9

회의문자 ①



郡

고을 군

郡자는 '고을'이나 '관청', '행정단위' 등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郡자는 君(임금 군)자와 畛(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중국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천자'나 '황제', '임금', '군주'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 郡자에 쓰인 君자는 그중 하나로 군주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군주를 뜻하는 君자와 畛자가 결합한 郡자는 '군주가 다스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고대에도 郡자는 군주의 명령이 미치는 관할 지역이라는 뜻으로 '고을'이나 '행정단위'의 명칭으로 사용됐다.

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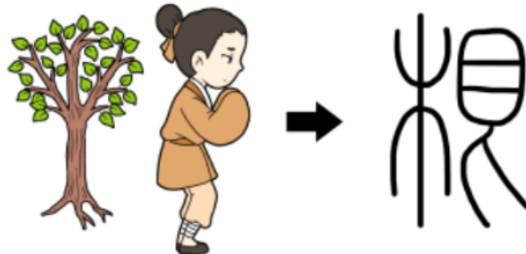
소전

郡

해서

6  
-  
10

회의문자 ①



根

뿌리 근

根자는 '뿌리'나 '근본', '밑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根자는 木(나무 목)자와 艮(어긋날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艮자는 사람의 시선이 땅을 향해있는 글자이다. 여기에 木자가 더해진 根자는 시선이 나무뿌리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뿌리'를 뜻하게 되었다.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근본이다. 그래서 根자는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뿌리인 것처럼 사물의 가장 원초적인 근본과 본바탕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根

소전

根

해서